

고정옥의 생애와 월북 이전의 저술 활동

김 용 찬*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국어국문학요강』 |
| 2. 고정옥의 생애와 우리어문학회 활동 | 3) 『조선민요연구』 |
| 3. 월북 이전의 학문 활동과 저서의 특징 | 4) 『고장시조선주』 |
| 1) 『국문학사』와 『국문학개론』 | 4. 맺음말 |

【요 약】

본고는 국문학 연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정옥의 생애와 그의 저술들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그의 연구 성과 중, 한국전쟁 이전에 발간했던 저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정옥은 1950년 월북하기 이전에 이미 3권의 저서를 발간했으며, 우리어문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학회에서 발간한 2권의 저서에 공동 저자로 참가하였다. 그의 연구들에서는 국문학의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는데 힘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작품들에 대한 해석 작업도 병행하였다.

경상남도 함양 출신인 고정옥은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하여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 시절에 독서회 활동을 하였고, 민족독립을 위한 실천운동의 성격을 띠는 반제동맹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당시 독서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회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관점이 이후의 학문활동에서도

* 동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대학 졸업 이후 잠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된다.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다른 학자들과 함께 ‘우리어문학회’를 결성하여, 학문적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문학 교재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국문학사>와 <국문학개론>은 학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발간된 연구 성과물이다. 또한 고정옥은 왕성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 저서인 <고장시조선주>와 <조선민요연구> 그리고 <국어국문학요강>을 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연구 성과들은 국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지금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머리말

지금까지 연구사적으로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고정옥(高晶玉: 1911~1968)이 남긴 연구 성과들은 우리의 국문학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고정옥의 학문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 고정옥과 그의 저작(著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든다면, 그가 남긴 연구 성과들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에는 고정옥이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의 와중에 월북을 했고, 그 이후 북에서 주도적으로 학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단지 남·월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물의 작품이나 연구 성과들이 문학사에서 거론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은, 남북의 분단이 우리 현대사에 아로새긴 비극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민요연구』¹⁾를 제외한 고정옥의 다른 저작들은 지금까지도 연

1) 고정옥, 『조선민요연구』(수선사, 1949).

구자들에게조차 제대로 소개되고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고정옥은 월북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월북 인사들의 작품이나 저술들이 해금(解禁)되어 소개될 무렵까지, 그의 존재나 연구 성과들은 여전히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그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다루어질 수 없었던 오랜 시간 동안 고정옥은 남쪽의 국문학 연구사에서 외면되었고, 그렇게 잊혀져 있던 존재였다. 더욱이 월북 학자나 작가들의 저작들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작품과 학문적 업적에 대해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정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자들의 관심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고정옥의 연구 성과들을 차분히 검토해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연구사에서 그는 학문적 성과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고정옥은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 국문학의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는데 힘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작품들에 대한 해석 작업도 병행하였다. 그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특히 고전시가에 대한 고정옥의 학문적 관심이 남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요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이론적 정립을 시도한 『조선민요연구』는 물론, 사실시조를 선별하여 주석을 행한 『고장시조선주』³⁾도 고전시가에 대한 그의 애정을 단적으로 보여주

2) 고정옥의 삶과 학문 활동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열전’ 형식의 글로 신동훈 교수가 이미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고정옥의 연구 성과를 개관하면서 구비문학의 성과를 다룬 김현선의 연구가 있었고, 최근 고정옥의 『고장시조선주』를 중심으로 ‘장시조론’을 다룬 김용찬의 연구도 제출되어 있다.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상) (『민족문학사연구』 제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 1995); 김현선, 「고정옥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집, 한국구비문학회, 1995); 김용찬, 「고정옥의 ‘장시조론’과 시가 해석의 한 방향」 (『시조학논총』 제22집, 한국시조학회, 2005) 등 참조.

3) 고정옥, 『고장시조선주』(정음사, 1949).

고 있는 저서들이다. 이밖에도 『국어국문학요강』⁴⁾ 역시 국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저서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그는 해방 이후 ‘우리어문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학회의 기관지인 『어문』과 학회에서 발간한 저서들에서도 국문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출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고정옥의 생애를 재구해 보고, 국문학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월북 이전 그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학문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⁵⁾ 특히 서울 사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어문학회’에서의 활동은 그의 연구 활동을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학회의 성격과 그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고정옥의 생애와 우리어문학회 활동

고정옥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미 신동훈에 의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진 바가 있다. 신동훈은 고정옥의 가족·친지들과 지인(知人)들

4) 고정옥, 『국어국문학요강』(대학출판사, 1949).

5) 고정옥이 북에서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월북 이후의 연구들은 주로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월북 이후의 저술 목록을 통해 확인했을 때 ‘속담’이나 ‘전설’ 등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 있지만, 대체로 이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온 민요 연구에서 대상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밖에도 작가론과 사실주의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러한 작업들은 서울 사대 교수 시절의 학문 활동이 심화·확대된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월북 이후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 여기에서는 월북 이전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그의 국문학자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월북 이후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는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하)를 참조할 것.

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그의 생애를 가능한 부분까지 재구해 놓았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된 고정옥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⁶⁾, 여기에 덧붙여 그가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우리어문학회’에서의 역할과 활동 상황에 대해서 학회 기관지인 『어문』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정옥은 호가 위민(渭民)으로, 1911년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났다. 고정옥의 본관은 제주이며, 대체로 풍족한 생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18년 함양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보통학교를 졸업한 1924년 서울의 명문인 경성제2고보(현재의 경북고)에 진학하였다. 학적부를 직접 확인한 신동훈에 의하면, 고보 시절 그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성적 또한 우수한 편이었다고 한다. 그의 4~5학년 당시 학적부에는 성질이 온화하고 사색적이지만, ‘비판적’이라는 평가도 덧붙여 있다고 한다. 고보 재학 시절 결석이 모두 34일이나 된다고 하니, 식민지 시절의 그는 결코 학교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정옥은 고보 4학년 무렵부터 신문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그가 일찍부터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1929년에 경성제2고보를 졸업한 고정옥은 곧바로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예과(6회)에 진학하였다. 대학 진학 후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였던 고정옥은 재학 중 동료·선배들과 어울려 독서회 활동을 했다고 한다. 대학 시절 그를 지켜보았던 지인들은 고정옥이 학자적인 타입이었으며, 본래 조용한 성격으로 공부에 열중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에도 신문에 시와 영화 평론 등을 발표했다.⁸⁾ 이 시기에 고정옥이 창작한 시들에는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6)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하) 참조.

7) 고정옥은 고보 시절 모두 13편의 시를 당시의 신문에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의 시에 대한 면모와 해석은 신동훈 교수의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 273~278쪽 참조.

8) 대학 시절 신문에 발표한 글은 시가 7편이며, 영화평 2편과 영화이론 1편

인 인식과 참여의 의지를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그의 시들에서는 현실에 대한 울분과 삶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만큼 문학적 감성과 열정이 강렬했던 때문일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고정옥이 신문에 썼던 영화평론에서 ‘스스로 프로예술 진영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예술의 공리적 기능을 유난히 강조하는 등 전적으로 사회주의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⁹⁾

대학 시절 그는 독서회와 반제동맹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관점을 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관점은 그의 학문 세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파악되어, 고정옥의 저술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¹⁰⁾ 고정옥이 활동했던 독서회는 비밀결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독서회를 통하여 맑스의 『자본론』과 부하린의 『유물사관』 등의 사회주의 이론서들을 접했다. 필연적으로 당시

등이 있다. 고정옥은 대학 시절 영화를 매우 즐겼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느 영화든 첫 날 첫 회에 혼자 가서 감상하고 작품평을 썼다’고 한다. 그가 대학 시절 신문지상에 발표한 글들의 목록과 자세한 내용은 신동훈 교수의 글에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 279~285쪽 참조.

9)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 285쪽.

10) 고정옥이 우리어문학회의 기관지인 『어문』 창간호에 발표한 「인간성의 해방」이라는 논문은 그의 사회주의적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는 그동안의 국문학 연구가 주로 봉건 귀족 문학의 성격을 논의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은 그간의 연구에서 ‘무의식적으로 제외’되었던 서민 문학의 근본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이 글을 썼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진행된 서민 문학의 제양상은 서구의 문예부흥에 비견될 만한 것이며, 기존의 지배 계급의 문학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이 출현한 것은 과히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고정옥, 「인간성의 해방」(『어문』 창간호, 우리어문학회, 1949.) 참조.

의 독서회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었던 셈인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독서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 자신들의 활동 방향이 민족운동이나 혹은 사회주의 운동이나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여하튼 고정옥은 독서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였고, 이후의 학문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옥이 참여했던 독서회는 1931년에 민족독립을 위한 실천운동의 성격을 띠는 반제동맹으로 발전하였다. 경성제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제동맹은 국제반제동맹의 지부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때 이 단체가 유일하게 침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단체의 회원을 사회인으로까지 확대한 반제동맹은 특히 실천적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고정옥의 하숙집도 반제동맹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하니, 이 모임에서 그의 역할은 적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1939년에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즉각 행동을 개시하기로 하고, 「반전격(反戰檄)」이란 격문을 작성한 다음 등사하여 9월 28일 극장 등지에 비밀리에 살포하였다. 이 일이 터진 이후에 일제는 관련자 색출에 나서 모두 50여명을 검거하였고, 고정옥을 비롯한 19명이 최종적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해 11월에 고정옥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풀려났으나, 대학에서는 퇴학 처분을 받고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신동훈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고정옥은 이 사건 이후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주로 고향에서 생활했으며, 우리 전래의 민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집행유예가 끝난 뒤 경성제대에 재입학을 한다. 지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고정옥은 반제동맹 사건으로 퇴학하기 이전에는 전공이 영문학이었으나, 재입학 하면서 국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고 한다. 퇴학을 당한 이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고향에서 지내면서 민요 수집을 하는 등의 활동에서

집작할 수 있듯, 평소 국문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우여곡절 끝에 고정옥은 1939년 경성제대를 졸업하게 되는데, 그의 졸업 논문의 제목은 『조선 민요에 대하여』라는 민요에 대한 것이었다. 이 졸업 논문이 후에 그의 저서인 『조선민요연구』(1949년)의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¹¹⁾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고정옥의 행적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식민지에서 해방될 무렵까지 춘천사범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반제동맹으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던 자신의 전력에 대한 영향인 듯, 이 기간 동안 고정옥은 조심스러운 처신을 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 되자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부임하게 되고, 비로소 이 때부터 본격적인 국문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는 특별한 사회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강의와 연구에 열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강의를 통해서 국문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강의의 결과는 그의 저서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를 통해서 보건대, 고정옥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현실 정치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국문학 연구에만 전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 1949년을 전후한 무렵에 그는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하게 된다.

고정옥은 당시 서울사대 교수와 강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어문학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학회는 순수한 학술 모임으로 국문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성과물로 강의에서 사용할 교재를 편찬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¹²⁾ 우리어문학

11) 이상 고정옥의 대학 시절 독서회와 반제동맹 등과 관련된 부분은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 285~289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2) ‘우리어문학회’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 학회에서 발간한 『국문학개론』(일성당서점, 1949)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서문은 방중현(方鍾鉉)이 썼는데, 학회의 성격에 대하여 논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이라는

회는 1948년 6월 10일에 방종현(方鍾鉉)·김형규(金亨奎)·손낙범(孫洛範)·정형용(鄭亨容) 등 4인이 모여 ‘국어국문학과 국어 교육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고 국어국문학총서와 같은 것을 발간하는 모임이 필요함을 상의’하여, 6월 20일 이들 4인 외에 정학모(鄭鶴謨)·구자균(具滋均)·고정옥(高晶玉) 등 7인의 위원(委員)이 모여 만든 ‘국어교육연구회’를 그 뿌리로 하고 있다. 연구회의 사업으로 ‘기관지와 고전문학총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모임을 열어 각 위원들의 논문 발표와 연구회의 활동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였다. 국어교육연구회는 1948년 8월에 ‘우리어문학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그 최초의 성과로 『국문학사』¹³⁾를 발간하였다.¹⁴⁾

고정옥은 학회의 회계를 담당했으며⁵⁾, 학회의 정기적인 모임에서는 회원들의 논문 발표와 함께 학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학회 차원에서 ‘고전문학총서’를 발간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었는데, 고정옥은 고전소설인 「박씨전」을 담당하여 출간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⁶⁾ 이후 우리어문학회의 활동은 꾸준히 지속되었는

학문(學問)의 같은 방면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몇 사람이 서로 시간 있는 대로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아는 것을 피차(彼此) 토론하고 그 의심(疑心) 있는 데를 공동으로 질정(質正)하여 써 서루의 친목(親睦)된 합력(合力)에 의(依)하여 우리의 학문을 좀 더 효과(效果)있게 전진(前進)의 길로 인도(引導)코자 하는 자연(自然)한 학문심(學問心)의 발로(發露)인 데에 이 모임의 근본 뜻이 있었던 것이다.”

13)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수로사, 1948).

14) 이상 우리어문학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기관지인 『어문』~창간호(우리어문학회, 1949. 10. 25)의 「우리어문학회 일지」(21~25쪽)를 정리한 것임.

15) “... 13.동년(1948년) 9월 10일(금)에 『국문학사』~기증의 건을 결의하고 ‘우리어문학회’인(印)을 회계(會計) 고정옥 위원이 보관할 것을 결의하다.”, 『우리어문학회 일지』, 『어문』~창간호(우리어문학회, 1949.), 25쪽.

16) “... 동년(1949년) 동월(12월) 24일(토) 구자균 위원 분담 정판본 「춘향전」의 통독 질의와 고정옥 위원 분담 사본(寫本) 「박씨전」의 질의를 하다.(於

데, 이듬해인 1948년에는 『국문학개론』¹⁷⁾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학회의 기관지인 『어문』은 1949~1950년 사이에 모두 3권이 발간되었으며¹⁸⁾, 여기에는 회원들의 논문들과 국문학 자료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 그리고 그 와중에 학회의 회원인 고정옥이 월북한 사실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학회 활동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 학회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체로 우리어문학회의 활동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관지인 『어문』의 학회 소식이나 일지 등에 기록된 학회 차원에서 진행된 다양한 ‘고전문학총서’의 발간 작업 역시 전쟁으로 인해 출간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학회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지인 『어문』의 발간도 지속되지 못하고, 모두 3권만을 발간한 상태에서 멈추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고정옥은 우리어문학회에서 발간한 『국문학사』와 『국문학개론』의 주요 집필자이기도 했는데, 이 두 저서의 그가 집필한 내용을 통해서 국문학에 대한 진지한 문제 의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정옥은 우리어문학회의 기관지인 『어문』에도 모두 2편의 논문을 싣기도 했다.¹⁹⁾ 또한 그는 학회의 활동과 병행해서 자신의 연

방종현씨택)…”, 『우리어문학회 소식』, 『어문』 제2권 제2호(우리어문학회, 1950.), 4쪽.

17) 우리어문학회, 『국문학개론』(일성당서점, 1949).

18) 발간된 기관지 『어문』의 호수와 발간 시점은 다음과 같다. 『어문』 창간호(1949. 10. 25.); 『어문』 제2권 제1호(1950. 1. 31.); 『어문』 제2권 제2호(1950. 4. 15). 『어문』 제2권 제2호의 ‘편집후기’에 의하면, 다음 호에 수록될 자료들이 소개되고 지속적으로 발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그 해에 발생한 한국전쟁의 영향인 듯, 기관지의 발간과 학회의 활동도 멈추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19) 고정옥, 「인간성의 해방」(『어문』 1권 1호, 1949.10.); 고정옥, 「잡감(雜感) - 철자법·단속법(斷續法)·한자 문제·외래어 문제·기타에 관해」(『어

구 성과를 저서로 출간하기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고장시 조선주』·『국어국문학요강』·『조선민요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학문적 열정이 매우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로 작용한다. 전쟁이 나자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남아 은신을 하고 있었으나,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들렀다가 곧바로 북으로 향했다고 한다. 당시 고정옥이 북을 선택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찍부터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그의 사상적 측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어쨌든 그는 결과적으로 전쟁의 와중에 북으로의 길을 선택하였고, 이후 북에서도 세상을 뜰 때까지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북에서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고정옥은 『조선 속담집』 등 구비문학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고 한다²⁰⁾ 신동훈 교수는,

문』 2권 1호, 1950.1.).

20) 신동훈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정옥이 북에서 발표한 저서와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저서> 『조선 속담집』(국립출판사, 1954); 『전설집』(국립출판사, 1956); 『조선 구전문학 연구』(과학원출판사, 1962). <논문> 「조선 민간극 연구 서설」(『조선어문』 3호, 1957); 「판소리에 관하여」(『과학원 창립5주년 기념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57); 「최치원론」(『고전작가론』(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동리 신재효에 대하여」(『고전작가론』(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조선의 설화에 관하여 -패설문학의 성격 및 소설의 발생 문제를 중심으로」(『조선어문』 1호, 1959); 「조선의 수수께끼에 대하여」(『조선어문』 2호, 1960); 「조선 고전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발전단계들」(『조선어문』 3호, 1960); 「조선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발전의 첫 단계는 9세기이다」(『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토론집), 과학원출판사, 1963). 이밖에도 다수의 평론과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정옥이 발표한 글들의 목록은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건대 고정옥의 북에서의 학자적 삶은 대체로 순조롭고 영예로운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북에서 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1968년 7월에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만다?¹⁾

이상 간략하게 고정옥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대개 그렇듯이 그 역시 삶의 여정이 간단치 않았다고 하겠다. 특히 전쟁의 와중에서 북으로 갔던 그의 행적은 한동안 남쪽의 학계에서 그를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삶의 행적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고정옥은 국문학 연구자로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적지 않게 제출하였다. 국문학의 전 영역을 섭렵한 그의 국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당대 최고의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제라도 고정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다.

3. 월북 이전의 학문 활동과 저서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 고정옥은 서울 사대 교수로 재직 중 ‘우리어문학회’ 활동을 하면서 2권의 저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으며, 그 자신의 이름으로 저술한 3권의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월북 이후에도 그는 꾸준한 학문 활동을 통하여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월북 이전에 남긴 그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국문학에 대한 그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224~225쪽을 참조할 것.

21) 이상 고정옥의 북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국문학사』와 『국문학개론』

고정옥은 우리어문학회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학회에서 발간한 국문학 교재에 집필자로 참여하였다. 우리어문학회는 당시 서울사대 교수와 강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모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국어국문학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어국문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이었다²²⁾ 우리어문학회에서는 당시 ‘대학 강의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국문학의 여러 분야를 나누어 강의 교재 형태로 모두 2권의 책을 펴내었다. 『국문학사』와 『국문학개론』이 그것인데, 이 책들의 집필에 참여한 ‘다른 필자들이 대개 평이한 개설 수준에서 내용을 서술한 데 비하여 고정옥은 문제의식이 수반된 독창적인 견해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²³⁾고 평가되고 있다. 먼저 이 두 권의 저서의 성격을 살펴보고, 고정옥이 집필을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해보기로 하겠다.

22) ‘우리어문학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기관지인 『어문』 창간호(1949. 10.)의 ‘우리어문학회’ 일지(日誌)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어문학회』 일지 1. 4281년(서기 1948년) 6월 18일(금) 오후에 방중현(方鍾鉉), 김형규(金亨奎), 손낙범(孫洛範), 정형용(鄭亨容) 4인이(於)방중현씨택) 모이어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고 국어국문학총서와 같은 것을 발간하는 모임이 필요함을 상의하고 내(來) 20일(일) 오전에 사범대학 국문과연구실로 집합하기로 하다. / 2. 동년(同年) 6월 20일 오전에 방중현, 정학모(鄭鶴謨), 구자균(具滋均), 김형규, 손낙범, 고정옥(高晶玉), 정형용 7인이 집합하여 『국어교육연구회』를 발기하고 위원이 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가) 매월 제1 금요일(오후 3시)을 예회일(例會日)로 정하고 집합 장소를 사범대학 국문과 연구실로 하다. (나) 본회의 위원은 위원 중 1인이 위원회에 추천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결정함. (다) 사업으로서의 기관지와 문학총서를 발간하기로 함. …(중략)… / 7. 동년 8월 8일(금). 고정옥 위원이 『문장 기사(記寫)에 있어서의 언어 단속법(斷續法)에 대한 소고』를 발표하고 복합어의 기사에 관하여 토론하다. 본회의 명칭을 『우리어문학회』라 개칭(改稱)하다. …(하략)”

23)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 294쪽.

우선 우리어문학회가 펴낸 『국문학사』는 ‘해방 이후의 첫 국문학사’²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적어도 국문학사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우리 국민이 반드시 가져야 할 상식’이기에, 그리고 ‘이 국문학의 역사를 알려고 하는 이에게 아주 단순히 또 다만 상식적으로나마 이것을 사적으로 통괄하여 보여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참으로 유감되’기에 『국문학사』 편찬에 나섰다²⁵⁾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문학사가 ‘단순하게 작품이나 작가의 나열에 그칠 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체계가 정연하고 사관(史觀)이 확립된 저작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국문학에 대한 ‘한 재 료로서 또는 학교 교재로서나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우선적으로 편찬했다고 한다.²⁶⁾ 먼저 『국문학사』의 차례를 보자.²⁶⁾

서

제1장 상고문학(上古文學)

제1절 국문학의 발생

제2절 삼국문학

제2장 중고문학(中古文學)

제1절 중고시대의 문학

제2절 향가

제3장 중세문학(中世文學)

제1절 고유문학의 위축과 한문학의 침투

제2절 장가의 발달

제3절 시조의 발생

제4절 한문학에 포섭된 고려문학

24) 김헌선, 『고정옥의 구비문학 연구』, 326쪽.

25) 이상은 『국문학사』의 ‘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26) 『국문학사』의 ‘서문’에는 해당 부분의 집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각 부분의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 “서 : 방중현 / 제1장 상고문학 : 정형용 / 제2장 중고문학 : 김형규 / 제3장 중세문학 : 손낙범 / 제4장 근세문학 제1절 ~ 제3절 : 정학모 / 제4절 ~ 제6절 : 고정옥 / 제5장 현대문학 : 구자균”.

제5절 나례와 처용가

제6절 한양조 초기의 문학

제4장 근세문학(近世文學)

제1절 훈민정음의 반포와 국문학

제2절 시가의 발전

제3절 소설의 발족과 연극의 전통

제4절 영정 시대를 중심으로 한 소설의 발흥

제5절 가집 편찬과 영정 이후의 시가

제6절 문학으로서의 민요

제5장 현대문학

제1절 제1기 신문학 태동발흥기

제2절 제2기 기성문단과 신흥문단 대립기

제3절 제3기 순수문학기

제4절 제4기 암흑기

제5절 제5기 신출발기

색인

우선 이 책에서는 국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상고 / 중고 / 중세 / 근세 / 현대’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에 의하면 대 ‘상고문학’은 대체로 국문학의 발생기로부터 향가(鄕歌)가 등장하기 이전의 삼국 시대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또한 향가가 전성을 이루던 통일신라 시대의 문학을 ‘중고문학’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려 시대로부터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의 문학을 ‘중세문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근세문학’과 ‘현대문학’의 기점은 1895년의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갑오경장을 계기로 하여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창작 의식·문예사조·묘사 방법 등이 판이해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문학사의 시대 구분은 문예의 표현 수단인 언어 문자만을 중심으로 하여²⁷⁾ 설정한 것으로, 이것 역시 학회의

27)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159~160쪽.

28)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159쪽.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⁹⁾

고정옥은 『국문학사』에서 ‘제3장 근세문학’의 제4절~제6절까지를 집필하였다. 시대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데, 목차의 내용을 보면 그의 문학사적 인식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선 후기를 ‘소설의 발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영조와 정조 시대의 활발한 문화적 분위기가 이를 가능하게 했음을 제목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시가문학은 가집의 편찬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고정옥이 당시까지 국문학의 주류에서 배제되고 있었던 민요를 문학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고정옥이 민요의 가치를 논의하는 관점은 비교적 선명하고, 오늘날에도 찾기 어려운 탁견을 제시³⁰⁾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는 뒤이어 편찬된 『국문학개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어 문학회에서는 ‘우리 문학이 형태별로 한 번 정리되어야 할 필요³¹⁾’에 의해서 『국문학개론』을 편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국문학 개론 역시 학회의 회원들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 집필하였고, 목차에는 해당 부분의 집필자를 밝혀 놓고 있다.³²⁾ 고정옥은 『국문학개론』에서 총론

29) “4. 동년(1948년) 동월(7월) 16일(금). 정학모 위원이 「국문학의 시대 구분」이라는 소론(小論)을 발표하고, 이에 관하여 토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다. 상고(上古)…신라 통삼(統三)까지. / 중고(中古)…신라 말까지. / 중세(中世)…훈민정음 반포까지. / 근세(近世)…갑오경장까지. / 현대…이후 금일(今日)까지.”, 『우리어문학회 일지』(『어문』~창간호, 우리어문학회, 1949), 22~23쪽 참조.

30) 김현선, 「고정옥의 구비문학 연구」, 327쪽.

31) 방종현이 쓴 『국문학개론』의 ‘서문’에서 인용하였음.

32) 『국문학개론』의 목차와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 “서 : 방종현 / I. 국문학의 형태 : 고정옥 / II. 국어학과 국문학 : 김형규 / III. 한문학과 국문학 : 정학모 / IV. 향가 : 손낙범 / V. 가사 : 정형용 / VI. 시조 : 정형용 / VII. 소설 : 정형용 / VIII. 연극 : 구자균 / IX. 민요 : 고정옥 / X. 신문학 : 구자균.”

에 해당하는 ‘I. 국문학의 형태’와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IX. 민요’ 부분의 집필을 담당하였다.

‘형태상으로 본 국문학의 유대’란 부제를 달고 있는 ‘I. 국문학의 형태’는 국문학의 각 갈래들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문학사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각 갈래들에 대한 상호 발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고정옥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고정옥이 지니고 있었던 문학 일반에 대한 이론적 안목을 살펴 볼 수 있는데, 먼저 『국문학개론』의 목차에 제시된 ‘I. 국문학의 형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지적했듯이 고정옥이 쓴 ‘I. 국문학의 형태’는 국문학 전반에 대한 총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다루고 있는 범위는 국문학사 전반에 펼쳐져 있다.

장르의 발전 / 국문학과 형태의 문제 / 세칭 향가의 형태상 분석(광·협 양의의 향가) / 쇠잔기의 향가 / 향가 발전의 두 갈래 길 / 고려가요의 성격과 시조의 파생 / 경기하여체가의 성격과 시조와 가사예의 발전 / 장·단가 의식과 양자의 선후 문제 / 가사 형태의 완성과 발전 / 가사와의 역사적 관계 / 평시조와 장시조 / 신문학과 시조 / 소설)

- 33) 『국문학개론』의 목차. 그러나 본문은 목차와는 다르게 모두 10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소항목의 번호만 제시되어 있는 본문 부분의 앞에 각 소항목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해 두고 있다. “1. 형태와 장르·장르의 어의와 형태·브룬티에에르의 「장르의 발전」. 국문학계와 장르의 문제·독선적 문학관의 해독. / 2. 「향가」 이의(異議)·향가의 완성 정형·향가 습작기 문학과 진정 향가(광·협 양의의 향가). 쇠잔기 향가(광의 향가의 일(-)). / 3. 향가 발전의 두 갈래 길·경기하여체가와 고려가요의 상사성과 이질성. 고려가요의 성격·시조의 파생. 경기하여체가의 성격·가사예의 발전. / 4. 장가·단가의 차별 의식과 그 역사적 관계. 가사의 완성 형태·3·4음(三四音)에서 4·4음(四四音)으로의 발전·대중적 토대에 선 가사·가사와 소설과 창극의 삼각형·가사는 중세기의 산문·가사 형태의 신문학에 끼친 유산. / 5. 시조와 가사의 교호 작용. 시조의 정형과 그 발전·시조의 두 장르(평시조와 장시조). 신문

고정옥은 국문학의 여러 갈래(장르)들의 성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각 갈래 사이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자신의 문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가 가설적으로 마련한 국문학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입장은 ‘I. 국문학의 형태’ 말미에 첨부한 ‘국문학 형태 발전표’에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고정옥은 이에 대하여 ‘우리 문학을 정통 문학과 민속적 문학으로 이분하고, 거기에 중국과 서구의 문학과 의 관계를 고려에 넣은, 형태상으로 본 국문학의 발전상의 일람표³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상호 교섭에 의한 문학사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의 글은 ‘아직 구비문학에 대한 인식이 일천했던 당대의 학문적 풍토에서는 가히 획기적인 것이³⁵⁾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처럼 국문학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구비문학을 주요한 바탕으로 삼고 있는 그의 시각은 민족문학으로서의 민요의 가치에 주목한 내용의 ‘IX. 민요’에 잘 반영되어 있다. 고정옥은 ‘조선 문학의 일부분으로서의 민요는 최초의 작자가, 불분명하다기보다도, 도리어 특정한 작자가 없는 것이 민요라는 시가 문학의 한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³⁶⁾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요의 작자와 전승 및 향유,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요에 대한 고정옥의 관점은 후에 『조선민요연구』

학에 끼친 시조의 영향. / 6. 소설의 3형태·번역적 소설·가사체 소설·내간체 소설·그 발전. / 7. 소설 이외의 내간체 산문·수필문학. / 8. 민요의 두 종류·민요의 고전적 가치·민요의 형태·유대의 관점에서 본 민요. / 9. 연극의 종류(가면극·창극·신파극·신극). / 10. 국문학을 문학과 민속적 문학으로 이분하고 중국·서구 문학의 영향을 고려에 넣은 국문학 발전상 일람표.”

34) 우리어문학회, 『국문학개론』, 35쪽.

35)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 297쪽.

36) 우리어문학회, 『국문학개론』, 302쪽.

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 『국어국문학요강』

이 책은 고정옥이 혼자서 저술한 것으로, 서두의 ‘예언(例言)’에서 그 성격을 ‘국어학과 국문학의 간략한 개론인 동시에 역대 국문학 작품의 해독·감상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³⁷⁾ 아무래도 이 당시 대학의 강의에서 사용할만한 적절한 교재가 많지 않았던 탓에, 고정옥은 『국어국문학요강』을 ‘국어국문학의 일반 입문서’로 집필하여 대학 등에서 교과서나 참고서로 활용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특히 국어학과 국문학을 포괄해서 다룸으로써, 당시 채 정리되지 못했던 ‘국어국문학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를 시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고정옥의 학문적 특징을 ‘실증적 방법론과 함께 이론적 안목, 문학적 감식안을 겸비³⁸⁾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국어국문학요강』이야말로 고정옥의 이러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정옥은 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비교적 묻혀 왔던 부면(部面)을 밝히기 위해서 몇몇 갈래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장시조·민요·연극·신소설 등’을 국문학의 영역 속에서 적극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⁹⁾ 이러한 태도는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저서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장시조’와 민요에 대한 관심은 특별한 것이어서, ‘장시조’에 대한 관심은 『고장시조선주』의 출간으로 나타나고, 민요에 대한 연구는 『조선민요연구』의 출간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이 책은 ‘국어학과 국문학을 포괄해서 세

37) 『국어국문학요강』의 ‘예언(例言)’.

38)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 297쪽.

39) 『국어국문학요강』의 ‘예언’ 참조.

부적 실증으로 내용을 채운 것'으로, 이를 통해서 '고정옥의 학문적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⁴⁰⁾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국문학요강』은 전체가 모두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 고문(古文)'과 '제2편 현대문'은 세부적으로 각각 '시가(詩歌)'와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실제 이 두 부분은 모두 작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작품에 대한 간략한 주석과 해제를 붙여놓고 있다. 특히 시가는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 '문장'의 항목에서는 소설과 기타의 갈래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그가 국문학에서 시가문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옥은 향가를 '국문학 최고(最古)의 형태'⁴¹⁾라고 논한 바 있는데, '제1편 고문'의 '시가'는 향가인 '제망매가'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갈래들은 향가·고려가요·시조·가사·장시조·내방가사·민요를 포괄하고 있으며, 「용비어천가」와 「두시언해」를 다루고 있는 것도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문장'에서는 「춘향전」을 비롯한 소설들과 「훈민정음」과 「꼭두각씨」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기행문과 제문 등의 수필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제2편 현대문' 역시 같은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시가' 항목에서는 창가 「동심가」와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리고 현대시인 「불노리」 등 3편만을 다루고 있다. 현대문의 '문장'에서는 신소설 「혈의누」와 이태준의 소설 「밤길」, 그리고 「3·1운동 독립선언문」 등 모두 3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그의 관심은 현대문학보다 고전문학, 특히 고전시가에 두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앞의 두 항목이 작품의 소개와 해설에 무게가 두어져 있다면, '제3편 어문학(語文學)'은 이론적 고찰인 셈이다. 이는 다시 '어학(語學)'과 '문

40) 김현선, 「고정옥의 구비문학 연구」, 328쪽.

41) 우리어문학회, 『국문학개론』, 7쪽.

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소항목에 대한 갈래의 정의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이론적 고찰을 펼치고 있다. '어학' 부분은 이두(吏讀)·훈민정음·언해·사전류·국자(國字) 발달 과정·어학기관 등으로 소항목이 짜여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에서는 향가(鄕歌) 이래의 국문학의 각 갈래들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갈래들은 향가·고려가요·시조·가사·소설·연극·민요·신소설·신문학 등이다.

3) 『조선민요연구』

이 책은 우리 나라의 민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우리 민요 연구사의 새 장을 연 기념비적인 성과⁴²⁾라고 평가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정옥은 대학 시절부터 민요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민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졸업논문을 썼을 정도였다. 이 책의 서문을 통하여 민요가 '이미 문학이라 호칭하지 못'하고, '민요의 학문적 범주를 찾는다면 그것은 민속학에 포섭될 성질의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학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 민주적인 민족문학의 건설을 지향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 가장 서민적이며 가장 향토적이었던 민요 유산의 구멍·섭취야말로, 새로운 우리 문학의 길을 개척하는데 불가결의 한 선행 과제라 할 것⁴³⁾이라고 하여 민요가 국문학의 영역 속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민요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민(民)'의 성격을 모두 3가지 측면에서 풀어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1. 개(個)에 대한 민(民)'과 '2. 군(君)·관(官)에 대한 민(民)', 그리고 '국(國)에 대한 민(民)'이 그것이다. 먼저 '개(個)에 대한 민'의 관점은 '문학이 개인의 제작임에 반하여 민요

42)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 301쪽.

43) 이상 『조선민요연구』의 '서'에서 인용하였음.

가 문자 그대로 민(집단)의 공동 창작이라는 점에 민요의 본질이 간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군·관에 대한 민’에서는 지배 계급의 양식이었던 시조와의 대비를 통하여, ‘민요의 향유계급은 통치계급이 아닌 민중이며 인민’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에 대한 민’에서는 ‘정치적 세력 범위가 민요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민족 정신이 민요의 단위를 형성’한다고 하여, ‘민요는 국가의 노래가 아니고 민족의 노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⁴⁴⁾ 이런 관점에서 ‘집단에 의하여 공동적으로 제작되며, 인민 대중에 의하여 노래 불리우며, 민족의 전통적 피가 맥맥히 물결치는 노래가 민요’⁴⁵⁾라고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처럼 고정옥은 ‘과거에 가장 서민적이고 향토적이었던’ 민요의 연구를 통해 국문학의 올바른 상을 해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선 민요연구』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본다면 민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부분(제1~7장)과 개별 작품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제8장 조선민요의 분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조선 민요의 특질’(제9장)과 ‘조선 민요 수집 연구의 장래를 위하여’(제10장)의 항목을 덧붙여, 민요의 특질과 민요 연구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책에서 민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민요의 개념과 역사, 민요의 형식과 분류 방법, 그리고 민요와 상호 관련을 맺고 있었던 다른 문학 갈래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 책의 상당한 분량을 우리 민요를 분류하는데 할애하고 있는데, 대체로 크게는 창자의 성별에 따른 ‘남요(男謠)⁴⁶⁾와 ‘부요(婦謠)⁴⁷⁾로

44) 이상 민요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조선민요연구』의 10~14쪽을 참조할 것.

45)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14쪽.

46) ‘남요’의 하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노동요 / 2.타령 / 3.양반노래 / 4.도덕가 / 5.취락가(醉樂歌) / 6.근대요 / 7.민간신앙가 / 8.만가(輓歌) / 9.경세가 / 10.생활요 / 11.정치요 / 12.전설요 / 13.어희요 / 14.유희요 / 15.정

나누고 이를 다시 기능과 내용에 따라 다시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고정옥이 시도한 작업들이 ‘학문적 일관성을 지니고 일률적인 전개를 보인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명료한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요의 실상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특한 접근을 꾀한 것은 우리 민요 연구의 획기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⁸⁾

그는 민요의 ‘특질을 논의하려면, 완전한 수집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일부분의 민요만을 보고 곧 함부로 단안을 내려서 어떠한 관념을 날조하여, 그 관념으로 조선 민요 전체의 특질을 연역해 내려는 태도는 지극한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다룬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민요의 특질에 대해서 ‘지극히 총괄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⁴⁹⁾ 하여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논의의 결과, ‘제9장 민요의 특질’ 항목에서 우리 민요의 내용적 특질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들고 있다. 이를 제시하면, ①부요의 양적 질적 우세, ② 풍부한 해학성, ③풍류를 해(解)하는 점, ④유교 교리의 침윤(浸潤), ⑤ 일반 서민의 지배계급에 대한 순종성과 여성의 남성에 대한 복종성이 규범화, ⑥무상취락적(無常醉樂的) 경향, ⑦생활고의 전면적인 침식 등으로 요약된다. 이밖에도 형식적 특질로는 ①아름다운 운율적인 관용구 내지 애용구가 많음, ②리듬의 장난이 너무나 많음, ③향토적 다양성이 적음, ④무용요의 희귀함 등을 지적하고 있다.⁵⁰⁾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거니와 『조선민요연구』는 ‘민요 연구의

가(情歌) / 16.동남동녀 문답체요’.

47) ‘부요’의 하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시집살이노래 / 2.작업요 / 3.모녀애런가 / 4.여탄가 / 5.열녀가 / 6.꽃노래 / 7.동녀요(童女謠)’.

48) 이상 김현선, 『고정옥의 구비문학 연구』, 332쪽 참조.

49) 이상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497쪽 참조.

50) 이상 민요의 특질에 관해서는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497~505쪽을 참조할 것.

학문적 성격, 우리 민요의 성립과 발전, 우리 민요와 문학의 상관 관계, 우리 민요의 수집사, 우리 민요의 분류, 우리 민요의 특질 등을 체계적으로 다룬 저작⁵¹⁾인 것이다. 실로 민요에 대한 고정옥의 관심은 지대하여, 이 책을 비롯하여 그의 모든 저서에는 국문학의 주요 갈래로 민요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조선민요연구』를 고정옥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4) 『고장시조선주』

이 책은 사설시조를 지칭하는 ‘장시조’ 50수를 선별하여 주석과 해설을 붙인 것이다. 대체로 고정옥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국문학의 갈래 중에서 특히 고전 시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남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요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이론적 정립을 시도한 『조선민요연구』와 함께, 『고장시조선주』는 우리의 고전시가에 대한 그의 애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사설시조 연구 초기의 중요한 성과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한 저서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과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한 연구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고장시조선주』는 당시로서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사설시조 연구에 한 획을 그은 저서로, 국문학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기실 고정옥에 의해 선정되어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그 면모로 보아, 오늘날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사설시조의 대표적인 것들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 책의 ‘서(序)’는 고정옥에 의해 시도된 사설시조론에 해당되는데, 이 또한 고전시가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물로 여겨진다.⁵²⁾ 사설시조의 발생과 문학적 특징을 조선 후기의 문화

51) 김현선, 『고정옥의 구비문학 연구』, 331쪽.

52) 『고장시조선주』의 ‘서’에 대한 분석과 고정옥의 ‘장시조론’에 대해서는 김

적 상황 속에서 주체로 나선 서민들의 문학정신이 발현된 것이라는 그의 논법은 지금도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내용 중에는 일부 작품에 대한 해설에서 피상적인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실증에 근거하지 않는 다소 무리한 추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논한 이 책의 성과는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고정옥은 시조를 ‘향가의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 문학’이며, 고려시대의 문학 양식인 ‘소위 『경기하여가(景幾何如歌)』나 『어부가(漁父歌)』의 일장(一章)이 분리하여 독립한⁵³⁾ 양식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연원을 지니고 있는 시조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갈래로서 ‘봉건 관료·양반·귀족·학자의 문학 양식’이며, 우리말을 기반으로 하고있기에 ‘국자(國字)의 제정을 계기로 급속한 발전을 진행⁵⁴⁾하였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16~7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서 ‘이를 막지 못하고 그 노쇠를 서민들 앞에 폭로한 양반 계급은 정치에 있어서 뿐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정체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⁵⁵⁾’고 파악한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문학사에는 새로운 담당층이 출현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귀족적 양식이었던 시조는 그 형식과 내용을 바꾸어 서민 계급들에 의해서 이른바 ‘장시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보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장시조’의 주요 작가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신진 중인 작가, 창곡가(唱曲家)·창극가(唱劇家), 부녀자, 기녀, 민요 시창자(始唱者), 몰락한 양반⁵⁶⁾’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작가층에 의해 ‘종래의 전형적인 시조(평시조) 형식은 다음과

용찬, 『고정옥의 ‘장시조론’과 작품 해석의 한 방향을 참조할 것.

53)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5쪽.

54) 고정옥, 『고정시조선주』, 6쪽.

55)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7쪽.

56)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9쪽.

같은 변모를 초래하'는 바, 그 형식적 측면으로는 '소설식으로 길어짐, 가사투가 혼입(混入)함, 민요풍이 혼입함, 여상(如上)한 제 경향이 한 작품 속에서도 잡연(雜然)히 혼재함, 대화가 많음, 새로운 종장 문구를 개척⁵⁷⁾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이면인 내용상'의 특징으로는 '구체성 내지 형이하적(形而下的)인 성질을 가진 이야기와 비유의 대담한 도입, 강렬한 애정의 표출, 육욕(肉欲)의 기탄(忌憚) 없는 영발(詠發), 어희·재담·욕설의 도입, 적나라한 자기 폭로, 비시적(非詩的) 사물의 무사려(無思慮)한 시화(詩化) 기도⁵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고정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학 담당층이었던 서민 계급이 '아직 문학적 교양을 쌓을 여유가 없었고', 그들에 의해 향유되었던 장시조도 '서민 계급이 양반 계급의 율문 문학을 상속받아, 그것을 자기네들의 문학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친 고민의 문학이며, 실패의 문학이⁵⁹⁾었다고 평가한다. 결국 장시조란 새로운 문학 담당층이 양반 계급의 문학에서 그 형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내용을 시도했지만, 이미 출발부터 형식과 내용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실패의 문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한다⁶⁰⁾ 그러나 비록 '실패의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문학사적으로 이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주옥같은 몇 편의 노래를 발견하는 기쁨을 또한 갖⁶¹⁾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이처럼 사설시조 가운데 '주옥같은 노래'를 뽑아 주석과 해설을 붙인 것이다.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청구영언 육당본>(일명 대학본)에서 가려 뽑은 것인데⁶²⁾, 이 책을 편찬할 당시에 고정

57)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9~10쪽.

58)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10쪽.

59)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15쪽.

60) 김용찬, 「고정옥의 '장시조론'과 작품 해석의 한 방향」, 72~73쪽.

61)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15쪽.

62) "4. 본서의 본문(1)은 소위 대학본 <청구영언>을 대본으로 삼고 연전 등

옥은 <청구영언 육당본>을 김천택이 편찬한 원본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체적으로 <청구영언 진본>이 출간되기 이전에는 다른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장시조선주』의 ‘예언(例言)’에는 수록 작품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작품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 철저히 ‘문학적 성격’을 우선시 하였다.⁶³⁾ 이는 당시 시조의 음악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취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로서는 사실 시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작품들에 대한 문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 책은 체제는 크게 사실시조의 전반적인 특징을 논한 ‘서’와 개별 작품들에 대해 주해(註解)를 붙인 ‘주석부’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의 특성상 작품을 다루고 있는 ‘주석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다시 간략한 ‘예언’과 50수의 작품에 대한 ‘주해’와 말미에 색인을 첨부하고 있다. 각각의 선정 작품들에는 수록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붙여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가집 원문 형태의 텍스트(본문1)와, 이를 다시 시조의 3장이나 대화체 형식 등으로 배열하여 당시 철자법에 맞게 표기한 본문(본문2)로 수록하였다. 여기에 각 작품의 어휘나 표현 등에 대해 주석을 덧붙이고, 마지막에는 고정옥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한 ‘감상·비평’을 기록하고 있다.⁶⁴⁾

사본 <청구영언>과 및 <해동가요>, <가곡원류> 등을 참고로 하여 간택 전사한 것이다.”, 『예언』, 『고장시조선주』, 18면.

63) “5. 우리는 시조를 순전히 문학으로 보는 것이므로, 분장(分章) 기타에 있어 가곡(歌曲)으로서의 시조는 고려 외로 두었다.”, 『예언』, 『고장시조선주』, 18쪽.

64) “3. 각 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1) 원전대로의 본문(본문 1). (2) 편저자의 주관으로 분장(分章) 또는 분단하고, 현행 철자법으로 고치고, 대화로 된 작품은 대화 급(及) 회화의 시종을 밝히고, 때로는 명확히 오사(誤寫), 오자라고 인정되는 것을 교정한, 알기 쉽게 기사한 본문

이러한 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장시조’에 대한 주석집일 뿐만 아니라 해설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 각 작품에 대해서 펼쳐낸 고정옥의 분석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각각의 작품을 선택한 안목과 시가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⁶⁵⁾

4. 맺음말

이상으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고정옥의 생애를 검토하고, 월북 이전 그의 저서들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고정옥과 그의 연구 성과들은 아직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판단이다. 민족의 분단과 그로 인한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었던 우리의 현대사에서, 특정 연구자에 대한 의도적인 기피가 우리의 문학사를 반쪽으로 만들었던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탁월한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도 오랫동안 남쪽의 연구사에서 잊혀진 채로 존재했던 고정옥 역시 이러한 이념적 대립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금기(禁忌)가 점차 깨어지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고정옥과 그의 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월북 이후 고정옥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동훈의 조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월북 이전 고정옥이 서울 사대 교수로 있으면서 저술한 저서들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충분히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서 가능한 부분까지 고정옥의 생애를 재구하고, 본격적

(본문2). (3) 주(註). (4) 감상·비평.”, 『예언』, 『고장시조선주』, 18쪽.

65) 이에 대해서는 김용찬, 『고정옥의 ‘장시조론’과 작품 해석의 한 방향』의 내용을 참조할 것.

인 연구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월북 이전 저서들의 특징을 검토해 본 것이다. 개략적으로 검토했지만, 고정옥이 이 시기에 남긴 저서들은 당대의 국문학 연구사를 재구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대에는 국문학의 주요 갈래로 인정받지 못했던 민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 그의 연구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소중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고정옥은 국문학의 특정 갈래에 치우치지 않고, 그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문학 갈래와의 상호 작용을 따지면서 국문학사의 전체적인 지형을 그리고자 하였다. 월북 이전의 연구 성과들이 월북 이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심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보다 더 확보하고 검토함으로써 추후에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장기적인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여전히 고정옥에 대한 연구사적 탐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솔직한 생각이다. 물론 본고에서는 그의 저작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피고 국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하는데 그쳤지만, 고정옥과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또 다른 연구 성과물을 제출할 생각이다. 이 글을 통해서 고정옥이 지닌 국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문학사를 파악하는 그의 관점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한다.

주제어 : 고정옥(*Go Jeong-ok*), 우리어문학회(*Urieomunhakhoi*: Korean Literary Society), 독서회(Reading Club), 반제동맹(*Banjedongmaeng*: Union against imperialism), 국문학 연구(Research of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사(History of Korean Literature), 월북 학자(Scholar who went to North Korea)

참고문헌

-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정음사, 1949.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 고정옥, 『국어국문학요강』, 대학출판사, 1949.
- 고정옥, 「인간성의 해방」, 『어문』~창간호, 1949.
- 고정옥, 「잡감-철자법·단속법·한자 문제·외래어 문제·기타에 관하여」, 『어문』제2권 제1호, 1950.
- 김용찬, 『18세기 시조문학과 예술사적 위상』, 월인, 1999.
- 김용찬, 『<청구영언 육당본>의 성격과 시가사적 위상』, 『조선 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 보고사, 2002.
- 김용찬, 「고정옥의 ‘장시조론’과 작품 해석의 한 방향 『고장시조선주』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제22집, 한국시조학회, 2005.
- 김현선, 「고정옥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제2집, 한국구비문학회, 1995.
-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상)」, 『민족문학사연구』~제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 세계(하)」, 『민족문학사연구』~제8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 수로사, 1948.
- 우리어문학회,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49.
- 우리어문학회, 『어문』~창간호, 1949.
- 우리어문학회, 『어문』~제2권 제1호, 1950.
- 우리어문학회, 『어문』~제2권 제2호, 1950.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of *Go Jeong-ok* & His Literary works before *Korean War*

Kim, Yongchan

This article is focused on looking around the life of *Go Jeong-ok* who took an important part in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his literary works. Especially in his research achievements, it is concentrated on the books printed before *Korean war*. *Go Jeong-ok* already published three books before he went to North Korea, and co-authored two books published by *Urieomunhakhoi*(Korean Literary Society) as a member. In his studies, he tried not only on making a theoretical system of Korean literature, but also on analysis on the individual literary works.

Go Jeong-ok was born in *Ham-yang, Kyeongsangnamdo*, and graduated a primary school in his hometown. He entered *Kyeongseongjedae*(K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Seoul), and took a part in a reading club and sometimes acted as a member of *Banchedongmaeng*(Union against imperialism) which is characterized a movement for the Korean people's liberation. He admitted the socialistic viewpoints while he was in the reading club, and the experience influenced considerably in this research works afterwards. After his graduation, he was a teacher shortly before he became a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he was a professo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organized '*Urieomunhakhoi*(Korean Literary Society)', and published

books for teaching by reading a paper and discussions in the society. The co-authored books, *History of Korean Literature*(국문학사) and *Introduction of Korean Literature*(국문학개론) are the published achievements of studies which are based on activities of the *Uriomunhakhoi* (Korean Literary Society). He published the books, *Gojangsijoseonju*(고장시조선주), *Study of Choseonminyong*(조선민요연구) and *Outline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국어국문학요강) through his energetic research works. His works shows that he tried to build the systematic views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they contain very important subjects even though the works are read by nowadays's viewpoint.

김용찬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산 119번지

동해대학교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화: 033-520-9203(연구실), 017-364-5912

e-mail: chany1@chollian.net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